

영국으로의 투자(Invest in the UK):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

종합 보고서

Withdrawn 17 May 2019

**BUSINESS
IS
GREAT**

BRITAIN & NORTHERN IRELAND





머리말

マイクル 보이드, Managing Director, 영국 무역투자청

투자 최적지로서의 영국의 장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가장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투자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발판으로 투자유치에 기록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공을 계속 이어나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즈니스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영국은 유럽 국가 중 투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됩니다¹. 또한, 영국은 세계 6위의 수출국이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여러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수익성 증가에 필요한 투자를 인프라와 공급망(Supply chain)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업 우선

영국은 우리에게 투자유치 국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에서 유래없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다양한 세금인하(tax reductions), 공제(tax credits), 경감(tax reliefs)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의 세율은 유럽 6대 경제대국 중 기준세율 수준이며, 2015년부터 20%로 더욱 낮아질 예정인데, 이는 G7 및 G20 국가 중 최저 세율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에 의하면 영국은 2014년도 기준으로 G7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², 2030년에는 유럽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7%, 2.3%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국 경제 전망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 최고의 기업 친화적 환경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은 유럽 국가 중 기업활동이 가장 용이한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영국의 기업 친화적 환경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유럽 최대의 이슬람계 금융거점 및 인민폐(Renminbi) 해외거래의 중심 허브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많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고등 교육을 이수한 가장 높은 인구비율을 자랑하고 있으며³, 유럽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향후 15년 동안 노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⁴. 영국은 모든 직종에 있어서 고급인력의 유입이 많은 나라로서, 다른 나라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비유럽 국가 출신의 전문인력 중 약 절반이 영국으로의 취업이주를 희망 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⁵.

UKTI의 지원

영국 정부 산하기관인 영국무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 UKTI)은 여러분이 영국에서 기업을 설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등의 업무에 있어서 영국에 위치한 다른 어느 기업과도 동등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서 UKTI의 다양한 지원업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영국은 성공적인 기업이 우리사회를 보다 발전하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료출처:

1. A.T. Kearney 2014.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 Ready for Takeoff
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4
3.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data refers to 2011)
4.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3. \$15 Trillion at Stake - the Looming Global Workforce Crisis
5. trendence 2013. Graduate Barometer 2013

목차

요약

세계시장으로의 관문	2
국제무역의 중심	4
전문인력의 유입	6
혁신의 중심	8

투자자문 등에 관한 Ukti 연락처

영국무역투자청(UKTI)은 해외기업의 성공적인 영국투자에 관한 제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국 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치한 영국대사관 및 영국영사관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영국에서의 여러분의 영국 투자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메일: InvestUK.Korea@fco.gov.uk

전화: (서울, 대한민국): +82 (0)2 3210 5500

웹사이트: www.gov.uk/ukt

세계시장으로의 관문

수출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출발점인 영국에 투자하십시오.

영국 투자의 장점

세계 무역의 중심인 영국은 향후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최적지입니다. 영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며, 2030년에는 서유럽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¹.

No. 1 2030년
서유럽 최대의
경제 규모

세계
6위의
경제 대국



넓은 저변시장

영국의 인구는 약 6천 3백만명으로 영국 자체로도 넓은 저변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5억명 규모의 유럽시장으로 향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EU 국가간 수출입에는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영국을 통한 비 EU 여러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도 무관세 또는 관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명 이상의
소비시장 규모



면세혜택
수출입에 대한
면세혜택



유럽 최대

유럽 최대의
항공노선

7개년 계획

도로망개선을 위한
7개년 계획

유럽 최고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철도인프라

편리하고 빠른 교통망

영국은 비록 면적은 작지만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집약된 대규모의 교통/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두번째로 큰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², 유럽 최대의 항공운송 시스템과³, 유럽에서 가장 선진화된 철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⁴, 대규모의 도로망 개선 7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등 영국은 사람은 물론 물류수송에 있어서도 매우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역강국, 영국

영국은 세계 10대 수출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중 하나입니다⁵. 영국의 수출액은 2013년 기준으로 약 5천 60억 파운드(한화, 약 88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⁶, 여러분의 성공적인 무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물류 및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천 60억
파운드
이상의
수출하고

국제 투자시장의 전초기지

영국은 기업활동을 있어서 내력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전초기지입니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 해외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⁷.

1st 유럽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세계 온라인 시장으로 향하는 포털, 영국

영국은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유럽 최대의 전자상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판매금액을 더한 만큼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⁸.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유럽 최대의 온라인 수출국입니다⁹. 영국에 투자를 하면 이러한 영국의 온라인 판매분야에 있어서의 장점을 함께 누릴수 있습니다.

1st 유럽
최대의
온라인
수출국

UKTI의 수출 지원 업무

영국에서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해외기업은 기존의 영국회사들과 동일하게 수출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UKTI는 시장조사, 신규 무역시장소개 등 여러분 기업이 보다 고부가 가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1.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2013.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13
2. Eurostat 2013. Maritime ports freight and passenger statistics 2011: gross weight of seaborne goods handled by main ports by type of cargo
3. CAA 2014
4. European Commission 2013
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4. The World Factbook: country comparison - exports
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4
7. HM Government 2014. Outward Investment: Selected Economic Issues: Trade and Investment Analytical Papers: Topic 15 of 18
8. Ecommerce Europe 2013. Europe B2C Ecommerce Report
9. British Retail Consortium and Google 2014

국제무역의 중심

유럽 시장의 지역본부 및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
설립에 최적 장소인 영국에 투자하십시오.

낮은 세금 부담

영국의 낮은 법인세율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전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1%의 법인세율은 이미 유럽 5대 경제 강국 중 최저 세율로 기록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로 더욱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G7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G20 국가에서도 공동으로 가장 낮은 법인세율입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영국의 기업 세제정책이 전세계
주요 경제대국 중 가장 기업
친화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 및 G7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2014: 21%
2015: 20%

전문성

영국은 재무회계(accountancy), 법률(law), 감사(audit) 등 기업의 혁신과 수출증대 및 성장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서비스(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OECD 국가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의 수출에 있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³. 세계 10대 재무회계 기업 중 6개사의 해외지점이 영국에 있으며, 세계 10대 법률기업 중 4개사,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광고회사도 영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창의성을 지닌 영국의 광고회사들은 여러분의 기업 브랜드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13년 기준으로 영국의 광고회사들은 미국과 호주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창의성 관련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유연성 있는 기업 관련 규제 및 기업 소유 구조

영국에서는 관련규제의 완화로 더 쉽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기업의 형태나 소유 구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및 무역에 유리한 각종 법령 규 및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주식시장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계적인 국제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4위 규모의 런던 증권거래소는 전 세계 70여 개국의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거래소입니다¹.



또 하나의 매력, 역동성

영국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역동성이라는 매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financial technology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², 이 결과 할리우드 최대의 영화 제작사가 영국으로 이전하였고, Hitachi사의 레일 부문 글로벌 본부는 도쿄에서 런던으로 이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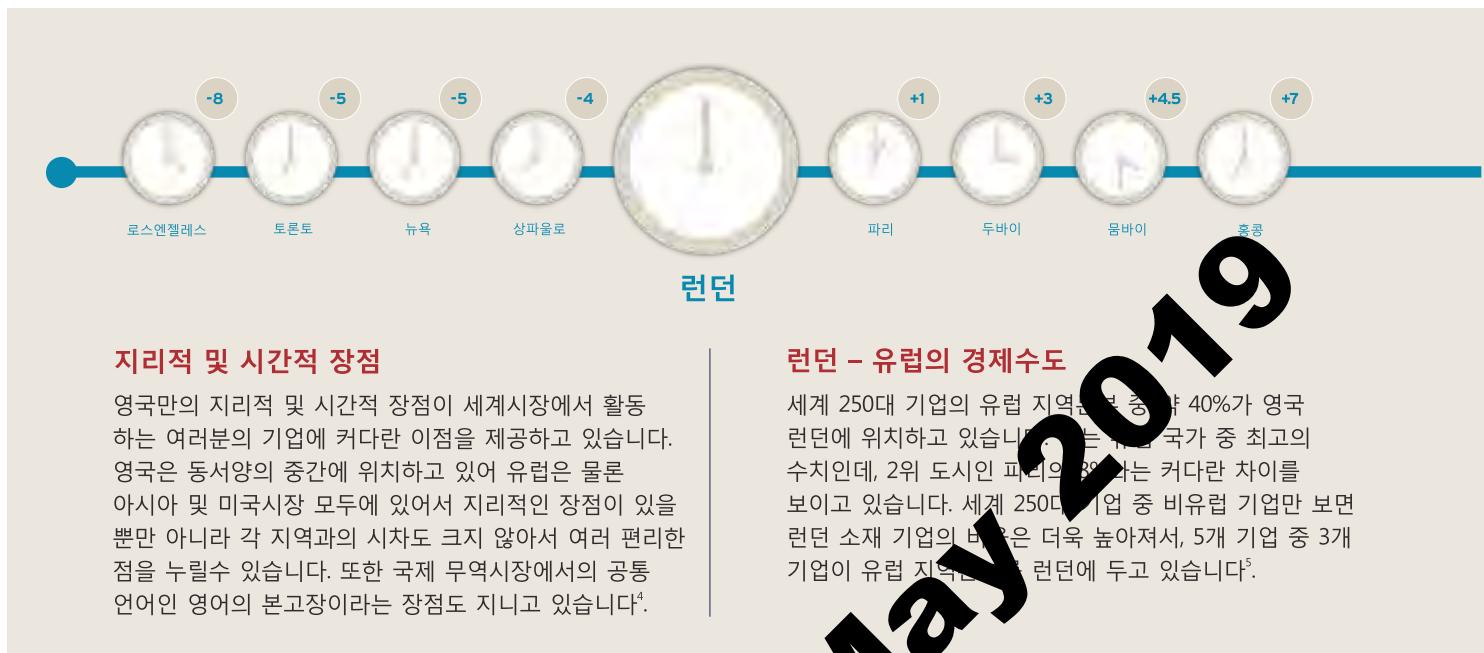
세계 10대 법률
기업 중 4개사

세계 10대 재무회계
기업 중 6개사



세계 최대의 광고회사





**세계 최대 금융
센터로서의 명성을
놓고 런던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는 뉴욕
뿐입니다.**

글로벌 금융허브

금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런던은 이미 유럽 내 다른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뉴욕과 세계 최대 금융센터로서의 명성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영국 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규모로 국제금융거래(cross-border banking) 부문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 영국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최고 품질의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어느 나라도 영국이 최고기준의 통신망 등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이 영국 내 언제 어디서나, 광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 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디지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 파워와 튼튼한 경제

영국은 세계 2위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명성은 영국의 문화, 창조적 전통, 기업환경 및 정책적 장점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자산을 토대로 진행하는 영국에서의 기업 활동은 다른 국가에서와는 달리 보다 나은 성과물을 낳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보다 용이하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EU 연합내에서의 영국의 영향력

영국은 EU 연합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경쟁력 있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영국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발휘될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파운드 통화에 대한 지배력(sovereignty over our currency)을 유지하여, 영국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1. world-stock-exchanges.net 2014. List of stock exchanges around the world
2. Accenture 2012.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vestment: A new growth opportunity for London
3. OECD Trade in Services data
4. Ipsos 2012. English is the Common Link for Employees Who Interact with People from Other Countries (online)
5. Deloitte 2014. London Futures: London Crowned Business Capital of Europe
6. Ofcom 2014. European Broadband Scorecard
7. Monocle 2013. Soft Power Survey 2013

전문인력의 유입

영국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숙련된 글로벌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의 허브

영국은 높은 기술수준과 함께 성공적인 인재들, 유입, 교육 및 유지보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수는 세계 7위이지만, 고급 인력의 규모는 인구 수 상위 6개 국가의 고급 인력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를 영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규모의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주요 경제대국 중 글로벌
인재부문

인재의 시대

현대는 인재의 역할이 한나라의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인재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반면, 영국은 글로벌 인재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고급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드물게 향후 15년간 노동 인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입니다².

글로벌 인재들의 선택 – 영국

세계 100대 고급 인력들이 영국에서 직업을 갖길 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비자정책도 이러한 상황에 유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도에 EU 연합국으로 취업 이주를 한 100만 여명 중 약 41만 5천명(약 38%)이 영국을 선택하였습니다. EU 및 비 EU 국가 출신 포함) - 2위를 차지한 독일과는 거의 19만 명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³. 향후 고급 인력의 국제적 이주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영국은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기업가들의 허브

영국은 전 세계 국가 중 기업 설립에 대한 가장 낮은 진입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⁴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2013년 한해 동안 영국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약 50만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⁵. 한편, UKTI는 촉망받는 유능한 전 세계 사업가들이 영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Sirius(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가 프로그램 (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기업활동 지원정책, 세제혜택, 유연성 있는 비자정책 등을 통하여 여러분은 보다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세계시장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활동
지원정책



세제
혜택



유연한
비자정책

■ 쉽고 빠른 세계 시장 진출



다국적 기업의 선택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동적인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의 장단점을 분석/조사합니다 – 그리고 영국을 선택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코카콜라, 모토롤라, 소니 등이 유럽지역 본부를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유럽지역 본부를 새롭게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를 결정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약 43%가 영국을 선택하였습니다 – 이는 2위 국가와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43%

가 유럽 지역 본부로 영국을 선택하였습니다.

OX

이는 2위 국가보다 약 3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종부한 노동 인력

영국은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중 '노동 및 언어능력(labour and vocational skills)'과 '글로벌지식(global knowledge skills)'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영국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럽 2위의 노동인구 보유국이라는 것을 뒷받침 할 만한 좋은 예입니다.

단순하고 공정한 인적 과세제도

영국의 개인소득세율(personal tax rates)은 유럽 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소득세(income tax)와 각종 사회보장부담금(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영국 근로소득자들의 총 급여에 대한 소득세율('all-in' wage tax rate)은 유럽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의 직장 내 평등성

여러분과 여러분 팀원 모두는 영국에서의 직장생활이 단순히 좋은 수준을 뛰어넘어 최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국의 재미있고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발표에 의하면 영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포용력 있는(tolerant) 국민 중 하나라고 합니다⁶. 영국은 유럽 국가 중 각종 평등성에 관한 법제(equality legislation)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기회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는 영국의 광범위한 법체제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1. INSEAD, Human Capital Leadership Index & Adecco Group 2013.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13
2. The Boston Consulting Group/Rainer Strack 2013. The Looming Global Talent Crisis - How to Counteract Workforce Imbalances
3. Eurostat 2013.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 annual results 2012
4. StartUp Britain 2013. 'Britain hits record start-up rate in 2013' (online)
5. OECD 2012. OECD Science, Technology & Industry Outlook 2012
6. Berggren, N. and Nilsson, T. (2013), Does Economic Freedom Foster Tolerance? *Kyklos*, 66: 177-207



혁신의 중심

세계시장에서 여러분의 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국에 투자하십시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개발 환경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영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업적인 성과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글로벌 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의 연구수준, 지식집약적노동력, 산학협력관계 등의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¹.

혁신분야에 대한 세계 지원 정책

혁신분야에 대한 세금공제 (tax credits) 정책을 통하여 최첨단 분야의 연구에서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특허 박스 (Patent Box) 세금정책으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특허 발명품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의 25%보다 최대 10%까지 절감합니다 -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하된 법인세율과 비교하여도 절반 수준의 세율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약 6%,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3%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노벨상 수상으로 인정된 영국의 과학기술 분야

영국은 과학분야에서 9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영국 과학자들은 세계를 변화시킬수 있는 업적을 이루어 왔는데, 체외수정 (IVF, in vitro fertilization) 개념을 최초로 착안한 Sir Robert Edwards (외과의인 Patrick Steptoe와 공동), DNA 문자구조를 발견한 Francis Crick과 James Watson, 2013년에 우리에게 '힉스입자 (Higgs boson)'로 알려진 아원자 입자(subatomic particle)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Peter Higgs 등이 잘 알려진 위대한 영국 과학자들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연구개발 업적

영국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업적은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영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 안 되지만, 연구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에 수록되는 논문 중 약 6.4%가 영국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인용 논문의 약 11.6%,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 논문의 약 15.9%가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루어낸 업적입니다².

8대 핵심 기술분야

영국 정부는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8개 산업 기술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이는 분야, 최첨단 연구 개발 시설을 통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 부문

위성 부문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부문

합성(인공) 생물학 부문

재생의학 부문

농업과학 부문

신소재 부문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분야

과학자와 연구개발의 나라

영국의 노동인구 5명 중 한명은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약 580만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7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³.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연구개발 분야의 종사자가 많은 나라입니다⁴.

산업기술 전략 위원회
혁신 지원 및 유도
www.innovateuk.org

효율적인 혁신 지원 기구

혁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산업기술 전략 위원회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제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시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개발 분야와의 연계지원
- 리서치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연계지원
- 혁신적사업(innovation projects)에 있어서 위험부담 감소를 위한 펀딩(win funding) 지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유럽 최고의 투자 유치국

여러분의 회사가 혁신을 위하여 영국을 선택하였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영국은 미화 약 70억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캐나다, 핀란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유치 규모를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이며, 프랑스나 독일(미화, 약 40억 달러) 보다 많은 액수입니다⁵.

유럽의 디지털 중심지

런던 동부에 위치한 테크씨티(Tech City)는 생명력 넘치는 영국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ial spirit)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유럽 최대의 디지털 클러스터(digital cluster)를 이루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혁신기업들(fast-growth startups)과 와해성(혁신)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이集聚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혁신과 혁신성을 누리기 위해서 런던 동부에 있는 아시아타운 테크씨티는 영국 혁신과 많은 디지털 클러스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로

산업기술 전략 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와 산하기관인 캐터펄트센스(Catapult Centres)는 첨단 연구개발 분야에서 영국 최고 수준의 기업, 과학자, 공학자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사업은 영국 전역의 약 100여 곳의 과학단지(science parks)와 300 여곳의 창업지원 및 육성 단지(business incubators)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 산업계 협력관계

영국 전체의 연구개발비 중 2/3가 산업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⁶. 또한, 기업연구개발비의 절반이 해외기업의 투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이는 영국의 혁신적인 기업환경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원활한 자금조달, 각종 세제 지원 혜택,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토대로 영국의 기업들은 보다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정책

전 세계의 혁신적인 사업가들은 영국의 건전한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intellectual property system)에 대하여 커다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혁신적인 사업가들의 특허가 가장 많이 등록된 나라는 영국으로, 영국 41.5%에 이어 독일 17.4%, 미국 12.6%, 일본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⁷.

스마트 씨티

향후의 스마트 생활방식에 적합하고, 아울러 경제성과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래형도시 캐터펄트(Future Cities Catapult)는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 생활 환경조성에 대하여 영국이 앞장서서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도시혁신(global urban innovation) 분야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1. Cornell University, INSEAD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2013. Global Innovation Index 2013
2. Elsevier BV 2013.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formance of the UK Research Base
3. Science Council 2011. Shape of the UK Science Workforce
4. OECD 2013. STI Scoreboard
5. OECD 2012. OECD Science, Technology & Industry Outlook 2012
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Business Enterprise R&D - 2012
7. OECD 201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atents: foreign ownership of domestic inventions



기업 활동에 편리한 비자 시스템

영국의 비자 시스템은 숙련된 근로자, 유학생, 연구원, 기업가,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국사증(비자) 없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 중 약 96%가 무비자 입국입니다. 영국 이민에 관하여 근거없는 부정적인 소문들이 있는데, 위에 언급한 자료들이야말로 영국의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대변해 주는 사실입니다.

영국 비자 및 이민국(UK Visas and Immigration)에서 비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학업 또는 근로 등을 위하여 영국 입국을 원하는 연간 약 300만 명의 비자 신청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는 영국 비자 서비스 중에서 기업가, 투자자, 또는 고용 근로자 등 여러분의 조건에 부합하는 비자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는 보다 편리한 비자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선된 비자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숙련 근로자 비자(skilled worker visas)의 경우 체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온라인 비자 신청이 더욱 간편해 졌습니다.
- 기업고객들을 위한 지원조직(business helpdesk)이 새로이 구성되었는데, 이는 고용주들과 그의 고용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의 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point of contact)로서, 즉刻 언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비자신청센터 증설 및 개선; 저희는 현재 전세계 200여 개소의 비자신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중국에는 각각 12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5일 이내에 비자를 발급하는 비자 우선 발급 서비스(3-5 day priority visa services)의 대상을 100개 국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38%

2011년, 2012년도에 유럽연합으로 취업 이주를 한 백만 명의 근로자(EU 및 비 EU 국가 출신 포함) 중 38%를 선택한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 약 15,000명으로 2위인 독일보다 약 19만 명이 많음 수준입니다¹⁰.

98%

숙련 근로자 비자(skilled worker visa) 신청자 중 비자가 발급된 비율이며, 비자 발급에는 단지 30분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96%

영주권을 제외한 비영주 비자(non-settlement visas) 신청자 중 15일 이내로 비자가 발급된 비율입니다.

7 일

방문비자(visitor's visa)의 처리에 소요된 평균 기간입니다.



“영국에 투자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국은 기업 활동에 매우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곳입니다.”

- 자스팔싱, ComfortDelGro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통 서비스 회사)의
영국 및 아일랜드 대표

영국 문화의 다양성

영국에서 근무하게 되는 여러분 기업의 직원들은 대부분 단순히 좋은 수준을 넘어 최고의 근무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문화에 편안하게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근무하는 다국적 기업의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s)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3%가 영국의 삶의 질, 다양성, 문화, 봉사, 등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적이라고” 답하였습니다¹¹. 런던에서는 최소 30% 이상이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¹².

영국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법률체계 (comprehensive law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가치(관) 조사(The World Values Survey)의 발표에 의하면, 영국은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사회이며, 이는 영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포용력이 높은 국민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¹³.

노사관계

영국의 탄력적인 고용 관련 법률은 모두가 함께 일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쟁의 빈도는 1970 - 1980년 대와 비교하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노동조합이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¹⁴.

영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단체교섭 이외의 방법으로 급여 및 근무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체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약 29%인데, 민간부문에서는 더욱 낮은 17%¹⁵,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출처:

1. The Boston Consulting Group/World Economic Forum 2011. Global Talent Risk – Seven Responses
2.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3. \$15 Trillion at Stake - The Looming Global Workforce Crisis
3. ONS 2013. Women in the Labour Market, 2013
4. World Economic Forum 2013.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14
5. World Bank 2012. Doing Business 2012: FDI Intelligence, from the Financial Times Ltd (2013)
6.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calculations based on established OECD methodology (OECD indicators no longer provide an overall index)
7.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data refers to 2011)
8. Eurostat 2014. News release: labour costs in the EU 28
9. Eurostat calculations 2014. Minimum wage statistics. For most countries, the minimum wage is agreed in terms of a monthly rate. For Ireland, France, the UK and the USA, the minimum wage is fixed at an hourly rate. For purposes of comparison, these hourly or weekly rates have been converted to a monthly rate, using factors supplied by the countries concerned
10. Eurostat 2013.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 annual results 2012
11. Ernst & Young 2014. UK Attractiveness Survey 2014
12. Von Ahn, N., Lupton, R., Greenwood, C. and Wiggins, D., 2010. Languages, Ethnicity and Education in London.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13. Berggren, N. and Nilsson, T., 2013. Does Economic Freedom Foster Tolerance? Kyklos, 66: 177-207
14. 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urvey 2011
15.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13 Trade Union Membership 2012: Statistical Bulletin



UK Trade
& Investment

gov.uk/uksi

영국무역투자청(UKTI)

영국무역투자청(UKTI)은 영국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영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럽국가 중 최고의 무역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에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는 해외기업들에게 다양한 자문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책사항(Disclaimer)

본 책자에 기재된 각종 정보 및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영국무역투자청(UKTI) 및 관련기관(영국기업혁신부-BIS,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영국외무행정부-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은 기재내용의 어떠한 오류, 누락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용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본책자에 언급된 모든 개인, 기체, 회사 또는 기타 기구의 평가 및 평판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으나 책자는 그 없음을 알립니다.

© Crown copyright 2014

영국정부의 'the Open Government Licence' 조항에 의거하여 본 책자의 내용은 다른형태(format) 또는 매체(medium)에 대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조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눈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www.nationalarchives.gov.uk/doc/open-government-licence 또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psi@nationalarchives.gsi.gov.uk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중 별도의 저작권 소유자(들)가 존재하는 경우 기재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시 해당 내용의 관련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문의를 낼어야 합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nquiries@uktiservice.gov.uk 또는 전화 +44 (0)20 7215 5000
본 책자는 영국정부 웹사이트 www.gov.uk/uks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find out more,
scan this code with
your smartphone
www.gov.uk/uksi

Published July 2014
by UK Trade & Investment
URN UKTI/14/1005

Image Credits: Front cover: © Felix Mackel / Getty Images, Inside front cover: Justin Lightley / Getty Images, p.7: © Hero Images / Getty Images

Withdrawn 17 May 2019

**THIS
IS
GREAT**

BRITAIN

Withdrawn 17 May 2019